지혜 없는 수행으로론 깨달음 없어



新 불교사자성어

㉜ 전도몽상(顚倒夢想)

'전도몽상(顚倒夢想)' 은 〈반야심경〉에 있는 사자성어다. 중생들의 생각은 매우 잘못 되어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있으며, 또 몽상(夢想)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명구는 중생들의 자존심을 다소 자극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려서 분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글자 풀이부터 하고자 한다. '전도(顚倒)' 는 '위치나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 '뒤바뀌어져 있다' 는 뜻이고, '몽상(夢想)' 은 '꿈같은 헛된 생각' ,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각' 을 가리킨다. 즉 모든 존재와 사물, 그리고 현상은 공(空)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존하는 것,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는 뜻이다. 이 말 속에는 '정신을 좀 차려라' , 또는 '현실(공의 현실)을 직시하라' 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갖가지 현상과 현실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 가상적인 것, 즉 '가유(假有)' 라고 한다. 현상은 '참(眞)' 이 아니고 '망(妄, 허망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으로서, 언젠가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이 아닌 허망한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아침저녁 예불이나 법회 등 행사 때 독송하는 짧은 경전인데,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하고 넓어서 반야심경을 100% 이해한다면 공부를 상당히 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반야심경〉은 반야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다. 자신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법안(法眼)을 갖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엉뚱한 비불교적인 수행, 사이비 수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또 어리석으면 자신이 본 것을 최고라고 여겨서 고집불통이 된다.

〈반야심경〉에는 "대승의 보살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거하기 때문에 마음에 집착과 구속됨이 없고, 집착과 구속됨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恐怖, 두려움)이 없다.

이 반야바라밀다(반야 지혜)의 지혜는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 몽상 같은 생각들을 멀리 물리치게 하며, 끝내는 니르바나(열반)를 성취하게 한다. 그리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반야지혜, 공)를 의지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인 아뇩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고 하여, 반야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커다란 전도몽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욕망에 눈이 멀어 '설마' 하면서, 또는 요행을 바라면서 강행한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좀 통제할 줄 알아서 조금 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수와 실패로 끝없이 인생을 반복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정견(正見, 바른 견해)이다. 정견은 팔정도의 하나로서 안목, 또는 정확하고 명석한 견해, 혹은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선에서는 '정안(正眼)' , '정법안장(正法眼藏)' 이라고 한다. 임제록에서는 '진정 견해(眞正見解, 참으로 바른 견해)' 라고 한다.

정견은 쉽게 설명하면 '안목(眼目)' '바른 안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바른 눈' 인데, 안목이 없으면 '참(眞, 진실)' 이 아닌 것을 '참' 으로 오판한다. '참' 과 '참' 이 아닌 것은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 또는 〈임제록〉 같은 선어록에 기준하면 된다.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에 빠지면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판하는 일이 적지 않다. 누구나 돌이켜 보면 "과신, 고집(주장), 환상, 자기 착각, 에고 등으로 오판만 하지 않았어도 이보다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불교출판을 하고 있는데 그간 여러 차례 오판을 했다. 그 결과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 욕망 때문이다. 욕심이 시야를 가려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오판을 자주 하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끝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비교적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인데, 특효약은 정안(正眼) 밖에 없다. 각자 정안, 안목, 정법안을 갖추는 것이 최상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어째서 향하는 묻지 않는가?"

〈向下〉



격절록 강설

㉜ 제12칙 목주소치(睦州苕幕)

[古則과 着語]

擧 僧問睦州 "高揖釋迦 不拜彌勒時如何" (有恁麼茆廣漢) 州云 "昨日有人問赶出院了也" (已是第二頭) 僧云 "和尚怕某甲不實" (怕死禪和如痲如粟) 州云 "拄杖不在 苕幕柄聊與三十" (拳頭也得便打)

어떤 스님이 목주(睦州, 목주도명)에게 물었다.

"석가에겐 높이 예를 올리면서도 미륵에겐 절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망상 꾸러기 같은 놈(茆廣漢)도 있구먼.]

목주가 말했다.

"어제도 어떤 놈이 (이렇게) 묻기에 절에서 내쫓아버렸다." [이미 제 2두(第二頭)에 떨어졌다.]

스님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아마도 제가 실답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아마도 죽은 선객이 마치 삼대처럼 많고 좁쌀처럼 많을 것이다.]

목주가 말했다.

"주장자가 없으니, 풀 빗자루로라도 삼십 방을 쳐야겠다." [주먹이 있으니 바로 쳐라.]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睦州只有受璧之心 且無割城之意" (旁觀者哂)

설두가 염(拈)했다.

"목주에겐 다만 벽(璧, 연성벽, 옥)을 받을 마음만 있었을 뿐, 성(城)을 떼어 줄 생각이 없었다." [곁에서 보는 자가 비웃는다.]

[評唱 1]

師云. 且道 這僧過在甚麼處. 豈不見石頭問讓和尚 "不求諸聖 不重己靈時如何" 讓云 "子問太高生 何不向下問將來" 頭云 "寧可永劫沉輪 不求諸聖解脫" 又僧問洞山 "文殊普賢來參時如何" 山云 "趁向水牯牛裏隊去" 僧云 "和尚入地獄如箭射" 山云 "全賴子力"

자, 말해보라! 이 스님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석두(石頭, 석두희천)가 회 화상(讓和尚, 남악회양)에게 물었다.

"모든 성인들(諸聖)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己靈)도 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회양이 말했다.

"그대의 물음이 몹시 거만하다, 어째서 향하(向下)는 묻지 않는가?"

석두가 말했다.

"차라리 영겁토록 윤회에 빠질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동산(洞山, 동산수초)에게 물었다.

"문수와 보현이 와서 참례할 때 어떻습니까?"

동산이 말했다.

"물소들 무리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스님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쏜 화살처럼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산이 말했다.

"전적으로 그들 덕택이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㉜ 이해의 길 12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인가?

〈苦〉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인데, 불교에서는 왜 괴롭다고 하나요?"

오래 전 어느 분이 던진 질문이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생명의 탄생마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 인간의 삶을 모두 고통이라고 진단한다. 오죽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겠는가. 사바(娑婆)란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忍土)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염세적 아우라가 물씬 풍긴다.

고(苦)의 문제는 근본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12연기와 삼법인, 사성제 모두에 등장한다. 12연기에서는 유전연기가 고통의 길이며 삼법인에서는 일체개고(一切皆苦), 사성제에서는 고성제(苦聖諦)가 그것이다. 그만큼 괴로움의 문제가 불교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불교에서 깨침을 중시하는 것도 이를 통해 비로소 생로병사의 고통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괴롭다고 했을까? 그리고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聖諦)라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괴로움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고고(苦苦)는 배고픔이나 추위, 질병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 둘째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을 괴고(壞苦)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사업실패, 빚보증 등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행고(行苦)는 인생의 무상함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싯다르타가 성문 밖을 나가서 마주한 삶의 진실, 즉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느끼는 실존적 고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괴로움을 사고팔고(四苦八苦)라 해서 네 가지, 혹은 여덟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네 가지 고통이란 앞서 언급한 생로병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생명의 탄생마저 괴로움이라고 진단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늙고 병들어 죽는 실존적 괴로움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면 괴롭다는 문제의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대상과 만나면서 느끼는 고통이다. 첫째로 애별리고(愛別離苦)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고통이다. 둘째로 원증회고(怨憎會苦)는 애별리고와 반대로 서로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다. 이 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愛之不見憂),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니 괴롭다(不愛亦見憂)."고 하였다. 셋째로 구부득고(求不得苦)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배가 몹시 고픈데도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사지 못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음성고(五陰盛苦)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오는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오음(五陰), 혹은 오온(五蘊)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활활 불타오르는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우쭐함이 강한데, 다른 사람이 대접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뜻한다.

지금까지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을 살펴봤는데, 인간의 고통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괴롭기 때문에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